

나해 부활 제4주일 기초자료

착한 목자

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

성소 주일

하느님의 부르심인 '성소(聖召)'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데,
특별히 오늘은 사제, 수도자, 선교사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.

“

수확할 밭의 주인님께
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. (마태 9,38)

”

착한 목자

이스라엘의 지도자들(목자)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 급급하여
백성들(양)을 돌보지 않았다. (예레 23,1-8; 예제 34,1-10)

“

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.
(요한 10,11)

”

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착한 목자,
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이심을 선언하신다.

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

“

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.
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. (요한 10,16)

”

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로서,
이스라엘이라는 우리 안으로 양들은 데려온다.
여기에는 이방인이든,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
그분을 따라 나서는 모든 이들이 들어올 수 있다.

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

“

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
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. (사도 4,12)

”

베드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이야기 하는데,
제자들은 성전에서의 모든 권한을 가진 대사제의 허락이 아니라
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
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.

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, 그러나 아직

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
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
생각해 보십시오. (1요한 3,1)

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**그분의 자녀**가 되었고,
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.

그러나,

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...
(1요한 3,2)

이미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여기며 **실천은 하지 않고 사는 이들에게**
요한은 그들의 **미래가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** 말한다.

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

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음으로써

그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,

그분의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.